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50 호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오늘의 AI

비즈니스

숙명여대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교육생 모집

숙명여대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플러스사업단이 AI 마케팅 자동화 무료 과정의 교육생을 10월 25일 자정까지 모집한다. 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고 마케팅 과정 정원은 25명이다.



비즈니스 · 숙명여대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교육생 모집

숙명여자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플러스사업단이 생성형 AI 실무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10월 25일 자정까지 모집한다. 서울시와 숙명여대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사업의 과정으로, 이번에 문을 연 것은 AI Agentic 마케팅 전략 및 자동화 실무 과정이다. 또 다른 과정인 AI Innovator 양성과정은 12월 중 개강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따로 공지된다. 이 과정은 글로벌 AI 비즈니스와 모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실무형 AI 전문가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수업은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대 캠퍼스 강의실에서 열린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 또는 서울 거소자다. 학교 공고는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고, 함께 게시된 포스터는 취업준비생과 이직준비생을 나란히 적었다. 학교는 공고에서 AI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직무 역량을 쌓으려는 졸업생과 졸업예정자의 지원을 당부했다. 자격 요건에 숙명여대 재학이나 졸업 여부는 들어 있지 않아, 서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구직자라면 이 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들은 숙명여대가 올여름 따낸 서울시 사업에서 출발했다. 숙명여대는 7월 21일 서울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사업으로 4년간 37억원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3개 트랙에서 모두 550명의 실무형 인재를 길러 낸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은 대학이 가진 940여 개 기업 네트워크로 현장실습과 취업을 잇고, 학생은 학점 인정과 소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당시 "의료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진행되며, 11~12월에는 화·수·목 주 3일, 이듬해 1~2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늘어난다.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류 평가와 기초 레벨테스트, 대면 면접을 거쳐 25명을 최종 선발하고, 11월 5일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개강해 2027년 2월 3일 마친다. 운영 측은 이 과정을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개 페이지는 정원이 차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커리큘럼은 직무 이해, 실행, 자동화, 포트폴리오의 4단계로 짜였다. 1단계에서는 콘텐츠·퍼포먼스·CRM 마케팅의 구조와 고객 여정, 프롬프트 실습, AI 저작권·개인정보·윤리를 배우고 시장·경쟁사·검색 트렌드를 분석해 고객 페르소나를 뽑는다. 2단계는 AI 카피라이팅과 이미지·숏폼 영상 제작, 타깃·예산·광고 소재·랜딩 기획을 다룬다. 여기서 클릭당 비용(CPC), 클릭률(CTR), 전환율(CVR), 광고비 대비 매출(ROAS) 같은 광고 성과 지표를 익히고 캠페인 운영안과 성과 대시보드를 만든다.



샘 올트먼, 초지능 안전 방안 3가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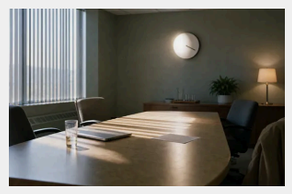
과정의 중심은 3단계 자동화다. 수강생은 CRM·이메일·SNS 자동화 시나리오를 짜고 리서치 에이전트, 콘텐츠 에 지 않는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브랜드나 제품 하나를 골라 AI 마케팅 전략서와 광고 카피·이미지·숏폼, 캠페인 운영안, CRM 자동화 시나리오, 성과 대시보드를 만들고 최종 발표에서 현직자 피드백을 받는다. 실습 목록에는 Looker Studio 기반 성과 대시보드 구축과 A/B 테스트 결과 리포팅도 들어 있다. 1~3단계는 개인 실습 중심이고 4단계는 개인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 운영 측은 수료생에게 시장 리서치 리포트부터 취업용 통합 포트폴리오까지 10가지 결과물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과정 소개 페이지가 내세운 문제의식은 취업준비생의 포트폴리오다. 페이지는 많은 취업준비생이 카피와 이미지는 잘 만들지만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기업이 원하는 마케터를 "결과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졸업 후 진로로는 AI 마케터, 콘텐츠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CRM 마케터, 그로스 마케터, 이커머스 마케터, 마케팅 자동화 운영자 같은 직무를 꼽았다. 메탈은 UBS가 신입 뱅커 채용 요건에 AI 능력을 넣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번 과정도 도구 사용 경험보다 캠페인 전체를 돌려 본 결과물을 취업의 증거로 삼는다.

교육 기간에는 수업 밖 취업 지원도 따라붙는다. 학교 공고에 따르면 교육생은 직무특강과 현직자 간담회, 1:1 맞춤형 취·창업 상담, 모의면접, 채용설명회, 일자리 매칭데이에 참여할 수 있다. 마케팅 과정 소개 페이지는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이력서·면접·포트폴리오 컨설팅과 채용정보·기업 매칭을 맡고, 수료 뒤에는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와 재교육·재취업 지원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 수강생은 창업지원단과도 연결

오늘 지면

1 비즈니스 숙명여대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교육생 모집
2 AI 오픈AI, PHP 치명적 취약점 공동 대응 발표
3 AI 오픈AI, 터미널 X 투자 판단 평가 사례 공개
4 AI 앤스로픽, 에이전트 앱 Claude Duet 공개
5 AI 앤스로픽, 클로드 전갈 독소 결합 단백질 공개
6 AI 구글 리서치, AI 초음파 임신 주수 연구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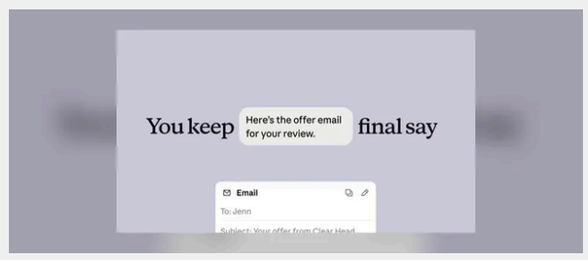
데미스 허사비스, AGI 전망 2~3년으로 단축



독일, 데이터센터 폐열 재사용 의무 완화

이 지면은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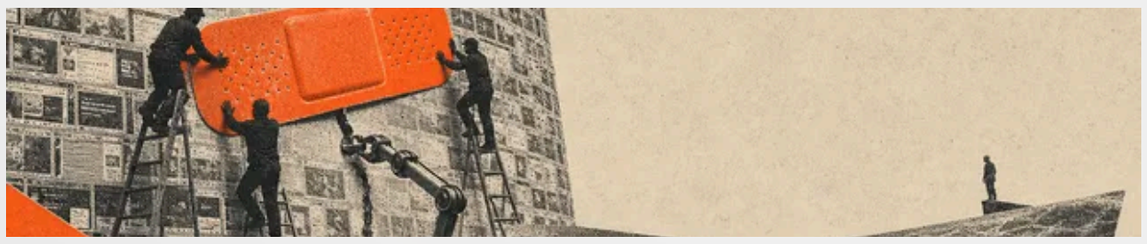
앤스로픽, 에이전트 앱 Claude Duet 공개

앤스로픽이 10월 21일 클로드가 먼저 말을 거는 에이전트 앱 Claude Duet을 리서치 프리뷰로 공개했다. 회사 발표문에 따르면 Claude Duet은 사용자가 챙겨야 할 일을 먼저 알려 주고, 맡긴 작업을 끝내고,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일을 이어 가며,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받는다. 미국의 Pro·Max 요금제 사용자가 대기자 명단을 거쳐 쓸 수 있고, iOS·안드로이드 단독 앱과 claude.ai 웹에

▶ 2면에 계속

AI

오픈AI, PHP 치명적 취약점 공동 대응 발표



오픈AI가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나온 치명적 보안 취약점 두 건의 공동 대응을 이끌었다고 10월 21일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보안 기업 캘리프(Calif)가 오픈AI의 패치 더 플래닛(Patch the Planet) 프로그램 안에서 GPT-5.6 Sol로 결함을 찾았고,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Wiz)도 두 취약점을 독자적으로 발견해 신고했다. PHP는 전 세계 웹 사이트의 약 70%를 돌리는 언어로 추정된다. 오픈AI는 지난 두 달 동안 메인테이너와 연구자, 보안 업체로 이뤄진 연합을 꾸려 공개 전에 수정판과 방어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취약점은 CVE-2026-109618과 CVE-2026-109619 두 식별 번호로 묶였고, 위즈는 심각도가 CVSS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즈 연구팀은 지난 10년 동안 나온 모든 PHP

▶ 2면에 계속

AI

오픈AI, 터미널 X 투자 판단 평가 사례 공개



오픈AI가 투자 판단을 데이터로 남기려는 스타트업 사례를 공개했다. 오픈AI는 10월 20일 공식 사이트에 터미널 X(Terminal X) 적용 사례를 올려, 이 회사의 평가 에이전트가 GPT-6.1 Sol 위에서 선임 투자 담당자의 판단과 88.6% 일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조건에서 차선 모델은 86.4%였고 차이는 220베이시스포인트다. 비교는 점수가 매겨진 판단 500건을 대상으로 했다.

터미널 X가 겨냥한 문제는 사람이 떠나면 판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를 메모리 부채라고 부른다. 투자사의 우위는 거래를 하나씩 쌓아 만들어지지만 각 결정 뒤의 추론은 보통 소수 선임 투자 담당자의 머릿속에 있고, 그들이 회사를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PHP 치명적 취약점 공동 대응 발표



1 오픈AI는 10월 21일 캘리프가 GPT-5.6 Sol로, 위즈가 독자적으로 찾아낸 PHP 취약점 두 건(CVE-2026-109618·109619, CVSS 9.2)의 공동 대응을 이끌었다고 발표했다.

2 결함은 PHP 엔진의 메모리 오류 처리에 있어 인증 없는 원격 코드 실행과 메모리 유출이 가능하고, PHP는 8.5.12·8.4.27·8.3.36·8.2.35로 고쳤다.

3 공개 일정은 유출로 하루 당겨졌고 클라우드플레어는 공격 트래픽을 관측했으며, 오픈AI는 AI 시대의 5단계 취약점 대응 틀을 제안했다.

원인은 PHP가 요청을 처리하다 치명적 오류, 특히 메모리 부족 오류를 만났을 때의 뒷정리 방식이다. 요청이 갑자기 끊기면 PHP 내부 상태가 오염된 채 남고, 같은 작업 프로세스가 다음 요청을 받으면서 그 낡은 상태를 다시 쓰는 순간 메모리 유출이나 손상이 일어난다. 위즈는 업로드 진행 처리 과정의 해제 후 사용(use-after-free), 원격 프로세스 메모리 유출, 치명적 오류 백트레이스의 해제 후 사용, OPcache 타입 혼동까지 네 가지 버그를 PHP에 신고했다. 이를 하나로 엮은 공격 스크립트 php2shell은 워드프레스와 드루팔, 줌라의 최신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로그인 없이 원격 코드 실행에 성공했다.

이번 사건의 무게중심은 AI가 맡은 역할이다. 위즈는 문제의 코드가 10년 넘게 PHP 안에 있었지만, 여러 결함을 사슬처럼 잇고 대상마다 다른 메모리 배치에 맞춰 공격 코드를 고치는 일은 사람 연구자가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경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즈는 결론에서 프런티어 AI 모델과 알맞은 도구를 갖춘 연구자 한 명이 예전 같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이 몇 달 걸렸을 일을 일주일 만에 끝냈다고 적었다. 연구에는 위즈 아틀라스(Wiz Atlas)와 Gemini 4 Argon, GPT-5.6 Sol이 쓰였고, 위즈는 발견과 공격 코드 개발, 패치 검증 전반에서 Gemini 4 Argon의 기여가 특히 컸다고 밝혔다. 라루카 아다 포파(Raluca Ada Popa)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 보안 총괄은 "위즈 팀은 Gemini 4 Argon으로 프런티어 AI가 왜 사이버 방어의 판도를 바꾸는지 보여 줬다"고 말했다.

위즈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첫 취약점은 8월 19일 발견됐고, 드루팔과 워드프레스에서 인증 없는 원격 코드 실행이 8월 20일과 21일 차례로 확인됐다. 위즈는 8월 24일 PHP 보안팀에 신고했고, PHP는 9월 21일 신고를 받아들여 공동 수정판 개발에 들어갔다. 수정판 배포와 공개는 10월 21일 함께 이뤄졌다. 오픈AI는 공식 X 계정에 수정이 매우 정교해 PHP 엔진을 크게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이만한 기간이 필요했다고 적었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터미널 X 투자 판단 평가 사례 공개



1 오픈AI는 10월 20일 공식 사이트에 터미널 X 적용 사례를 올려, 이 회사 평가 에이전트가 GPT-6.1 Sol 위에서 점수가 매겨진 판단 500건에서 선임 투자 담당자와 88.6% 일치했다고 밝혔다. 차선 모델은 86.4%였다.

2 터미널 X는 사람이 떠나면 추론이 사라지는 문제를 메모리 부채라고 부르고, 자산군과 전략별 수백 개 에이전트와 회사 Memory로 투자 절차를 기록한다. 판단 단계는 GPT-6.1 Sol, 대량 처리는 GPT-6 Luna가 맡는다.

3 54개 기준 평가표를 쓰는 평가 에이전트는 운용 지침 이탈을 차선 모델보다 약 25% 더 잡아냈고 질의당 비용은 약 30% 낮았다. 한 사모펀드는 연간 240만 달러를 아꼈다고 보고했다.

구축은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터미널 X의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는 JP모건과 블랙스톤에서 일한 금융·투자 전문가 출신으로, 고객사 투자팀과 수 주간 같은 자리에 앉아 신뢰받는 투자 메모를 역설계한다. 신용 데스크가 차주를 선별하는 방식이나 공동투자팀이 메모를 쓰기 전에 어떤 출처를 먼저 보는지처럼 한 번도 문서로 적힌 적 없는 절차가 그 대상이다. 이렇게 추출한 절차는 자산군과 전략별로 맞춤 설계된 수백 개 에이전트에 담기고, 투자 단계마다 하위 에이전트가 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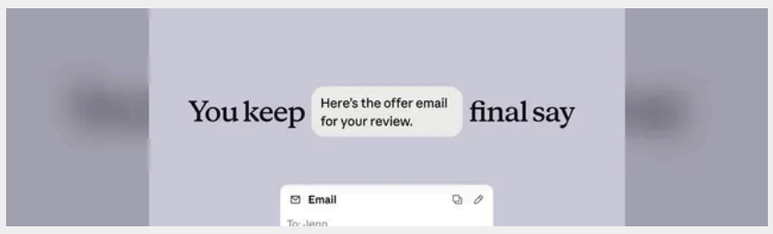
메탈이 확인한 발표문에서 두 모델의 역할은 단계별로 갈린다. GPT-6.1 Sol은 투자 논리를 종합하고 핵심 고려사항을 찾아내며 펀드의 운용 지침과 맞는지 판단하는, 판단과 큰 맥락창이 필요한 단계를 맡는다. GPT-6 Luna는 깊이보다 토큰 효율이 중요한 대량 처리 단계를 돌린다. 메탈은 오픈AI가 저지연 추론 모델 GPT-6.1 Sol Ultrafast를 출시한 소식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번 사례는 같은 계열 모델이 기업 내부 업무에서 어떻게 나뉘어 쓰이는지 보여 준다.

에이전트는 각 투자사의 전용 데이터룸 안에서 돌아간다. 민감한 투자 자료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격리 환경으로, 배치는 온프레미스나 고객사 자체 클라우드 가운데 하나다. 에이전트는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문서를 처리하고 학습한 내용을 회사 Memory로 저장한다. 하나의 데스크가 한 종류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과거 분석, 위원회 결정, 업무 지침, 하우스 뷰까지 버전별로 남긴 기록이다. 엔지니어는 이 Memory를 플랫폼 위의 반복 가능한 워크플로로 바꾸고, 운영 단계의 모든 질의는 수행한 단계와 참조한 출처, 사용한 모델, 추론 과정까지 추적할 수 있게 남는다.

◀ 1면에서 계속

AI

앤스로픽, 에이전트 앱 Claude Duet 공개



1 앤스로픽은 10월 21일 Claude Opus 5.5 기반의 선제형 에이전트 앱 Claude Duet을 미국 Pro·Max 요금제 대상 리서치 프리뷰로 공개했다.

2 Claude Duet은 매일 아침 브리핑을 보내고 몇 시간마다 연결 앱을 확인하며, 자체 브라우저를 갖춘 가상머신에서 커넥터·플러그인 6000여 개를 써서 사용자 기기가 꺼져 있어도 일한다.

3 메시지 전송·결제·서명·삭제는 사용자 승인을 거치고 증권 거래와 계좌 간 송금은 승인해도 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번호·신분증 유출을 막는 전용 분류기를 새로 붙였다.

하루의 흐름은 아침 브리핑에서 시작한다. Claude Duet은 매일 아침 연결된 앱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추린 짧은 보고를 보내고, 낮에는 그 앱들을 지켜보다가 사용자가 봐야 할 일이 생길 때만 메시지를 보낸다. 확인 주기는 몇 시간 간격이다. 앤스로픽은 쉬지 않고 확인하면 요금제 사용량 한도가 훨씬 빨리 바닥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사용자는 무엇을, 얼마나 자주 알려 줄지를 직접 정할 수 있다. 사용량은 기존 클로드와 같은 한도를 나눠 쓰는데, 뒤에서 도는 확인 작업도 한도에 들어가고 재무 모델이나 발표 자료처럼 큰 일은 더 많은 모델 호출을 쓴다.

작업 범위는 회의 일정 잡기 같은 사무부터 수십 개 도구를 엮은 대시보드, 재무·영업 예측, 프로토타입과 웹 앱 제작까지 넓다. Claude Duet은 자체 브라우저를 갖춘 가상머신에서 돌아가 사용자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일을 계속한다. 짧은 메시지로 일을 설명하면 어떤 앱을 쓰고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를 스스로 정해 뒤에서 처리하고, 끝나거나 검토가 필요할 때 알림을 보낸다. 보도에 따르면 진행 중인 일은 작업 탭에, 완성된 결과물은 만들기 탭에 모이며 작업을 끝난 것으로 표시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만 있다. 업무 중심으로 만든 탓에 공연 예매 같은 개인 용무는 덜 매끄럽고, 자신의 브라우저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 주는 기능은 아직 없다.

연결 범위는 클로드 마켓플레이스의 커넥터·플러그인 6000여 개다. 발표문은 지메일과 슬랙에서 놓친 메시지를 찾아 답장을 돕고, 인튜이트 퀵북스나 스트라이프에서 미수금 청구서를 찾아 독촉 메일 초안을 쓰고, 거스토에서 근무시간과 보너스를 채워 급여를 준비하는 예를 들었다. 링크드인 채용 공고, 도큐사인 계약 서명, 허브스팟 후속 메일, 캔바 캠페인, 쇼피파이 매장 운영도 목록에 있다. 구매는 스트라이프의 디지털 지갑 링크로 한다. Claude Duet이 품목을 사용자와 확인하면 링크가 지출 승인을 받고, 결제는 가상 카드로 해 실제 카드 번호가 넘어가지 않는다. 1Password에 저장된 로그인으로 사이트에 들어가는 기능은 곧 붙는다.

AI

앤스로픽, 클로드 전갈 독소 결합 단백질 공개

앤스로픽이 클로드가 설계한 전갈 신경독소 결합 단백질 211건의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17건이 기준을 넘었지만 중화 실험은 아직 없어 회사는 항독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1 앤스로픽은 10월 20일 연구 블로그에 클로드가 설계한 전갈 신경독소 결합 단백질 211건을 외부 기관 두 곳에서 시험해 17건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2 모델은 초기 지시문 하나와 추가 지시 네 번으로 64시간 동안 설계 31만 8484건을 만들고 180건을 골랐으며, 연구팀이 31건을 더했다.

3 결합만 확인했을 뿐 세포와 동물에서 중화 효과를 시험하지 않아 회사는 항독소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설계 211건과 데이터를 공개했다.

앤스로픽이 클로드가 설계한 전갈 신경독소 결합 단백질의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회사는 10월 20일 연구 블로그에 설계 211건을 외부 기관 두 곳에서 시험한 결과 17건이 자사 기준을 충족하는 결합체였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211건 전부와 실험 데이터를 연구 자원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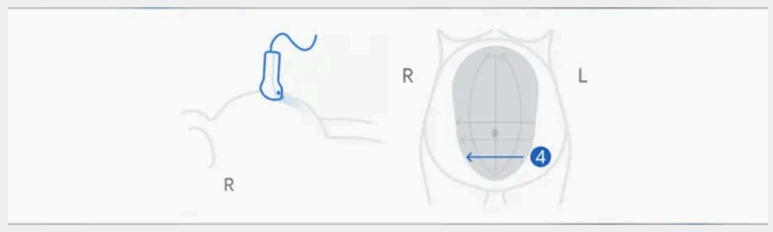
목표는 방치된 열대질환이다. 전갈은 해마다 120만 명 이상을 쏘고 3250명 이상을 숨지게 하며, 희생자 대부분은 의료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다. 새 치료제는 만드는 비용이 크고 개발비를 회수할 가능성도 낮아 투자가 거의 없었다. 기존 항독소는 수천 마리에서 뽑은 독으로 말을 면역시킨 뒤 혈액에서 항체를 정제하는 방식이라 몇 달이 걸리고, 소수의 신경독소에만 듣는다.

연구는 금융 투자 리서치 회사 시트리니 리서치(Citrini Research)가 던진 질문에서 시작됐다. 의욕 있는 비전문가 집단이 AI로 사람의 건강에 걸린 진짜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앤스로픽 생명과학 연구팀은 클로드와 주제를 추린 끝에 전갈 신경독소를 겨냥한 새 결합 단백질 설계를 택했다.

AI

구글 리서치, AI 초음파 임신 주수 연구 공개

초음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휴대용 탐촉자로 배를 훑기만 해도 AI가 숙련 초음파사 수준으로 임신 주수를 판정했다. 시카고와 나이로비 임산부 385명에서 AI 오차는 4.18일, 표준 방식은 4.48일이었다.



1 구글 리서치는 10월 21일 블라인드 스윕 초음파 AI가 시카고·나이로비 임산부 385명에서 평균 절대 오차 4.18일로 숙련 초음파사의 4.48일에 비열등했다는 다기관 전향 연구를 소개했다.

2 모델은 노스캐롤라이나·잠비아 1968명으로 학습한 뒤 시카고 120명(원 학습 규모의 약 6%)으로만 새 휴대용 탐촉자에 맞췄고, 미세조정 데이터가 없던 나이로비에서도 오차 4.27일을 냈다.

3 6시간 실습을 받은 나이로비 조작자의 스윕 거부율은 1.8%로 시카고 7.9%보다 낮았고, 연구진은 교체형 배터리와 모델 신뢰도 표시 같은 현장 설계를 과제로 꼽았다.

구글 리서치가 의료 영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값싼 휴대용 초음파 탐촉자로 배를 정해진 순서대로 훑기만 해도 AI가 숙련 초음파사 수준으로 임신 주수를 판정한다는 다기관 전향 연구 결과를 10월 21일 공개했다. 미국 시카고와 케냐 나이로비 임산부 38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AI의 평균 절대 오차는 4.18일로, 숙련 초음파사가 표준 방식으로 잰 4.48일보다 작았다. 논문은 앞서 7월 9일 의학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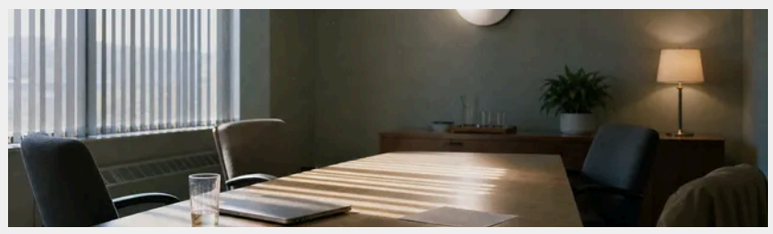
연구가 겨냥한 공백은 크다. 구글 리서치 연구 엔지니어 앤절리카 윌리스와 구글 포헬스 임상 총괄 니콜 영린은 블로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을 인용해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해마다 25만 명 넘게 예방 가능한 죽음이 생긴다고 적었다. 산전 초음파는 태아와 산모 사망을 줄일 수 있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초음파 같은 영상 진단에 접근하지 못한다. 초음파사 양성에는 여러 해와 큰 비용이 들어 저자원 지역의 수많은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초음파를 한 번도 받지 못한다.

임신 주수가 왜 중요한지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영린 총괄의 설명이 짧다. 그는 "임신 주수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임신한 지 얼마나 됐는지를 뜻한다. 모든 선별검사와 상당수 치료, 분만 시점 판단이 임신 주수에서 얻는 이 기준 시간표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논문은 조산과 과숙 분만을 막는 개입의 시점, 전자간증 같은 고위험 질환 관리, 성장 이상 판별이 모두 정확한 임신 주수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데미스 허사비스, AGI 전망 2~3년으로 단축

데미스 허사비스가 AGI 도래 시점을 2~3년으로 당겼다. 올해 2월 5~8년, 그 뒤 3~5년이었던 전망이 10월에 다시 짧아졌고, 그는 같은 기간 중대한 보안 사고 가능성도 함께 경고했다.



1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가 10월 2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AGI가 2~3년 안에 온다고 밝혔다. 올해 앞선 전망은 3~5년, 2월 보도에서는 5~8년이었다.

2 그는 AGI를 인간 뇌의 인지 능력 전부를 갖춘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1901년까지의 지식만으로 1905년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재현할 수 있느냐를 판별 기준으로 든다.

3 같은 사람이 지난주 더블린 국제 AI 정상회의에서는 안전 기준을 올리지 않으면 2년 안팎에 중대한 보안 사고가 온다고 경고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가 범용인공지능(AGI) 도래 시점을 2~3년 뒤로 당겼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10월 2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고, 같은 해 앞서 내놓은 3~5년 전망에서 한 번 더 단축했다. 2월 보도에서는 5~8년이라고 했으니 올해에만 세 차례 숫자가 줄었다.

허사비스는 큰 연구소 수장 가운데 비교적 신중한 예측을 해 온 쪽이다. 2025년 봄에는 AGI까지 5~10년을 말했고, 올해 4월 한 투자사 행사에서는 2030년을 짚으며 자신이 그 시점에 대해 "꽤 일관돼 왔다"고 했다. 당시 그는 이 분야가 "기본적으로 정확히 예정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전망대로라면 AGI는 2028년이나 2029년에 온다.